

## 불신의 뿌리

요한복음 5:31-47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충분한 4가지 증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 가운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살펴봄으로 우리안에 있는 불신의 뿌리를 제거하고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 I. 우리가 믿을 수 있는 4가지 증거

#### 1. 세례요한의 증거가 있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서 그에 대한 진리를 증거 하였다.

#### 2.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기적적인 사역이다.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 주셨다.

#### 3. 하나님 자신의 증거가 있다.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는 하늘로 부터 오는 음성으로서 증거 한다.  
마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 4. 성경의 증거가 있다.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

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증거를 깊이 묵상하고 항상 마음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 II. 불신의 뿌리

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차고도 넘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능력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때로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과 모험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이번 10.29 사건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의 무참한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 젊은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일생동안 해 온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 책임감을 느꼈다. 이 사건 다음날 뉴스를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어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잤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이가 80을 넘은 은퇴한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에 견딜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다. 주님께서 정말 감당키 어려운 사명을 깨닫게 해 주셨다.

첫째는 오마음교회를 평신도로 참여 하라는 것이요, 둘째는 내가 세운 ESF에 동참하라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젊은 이들이 모인 교회로 개혁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일을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나의 책임을 감당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나의 이와 같은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 했다.

처음으로 어려운 일은 내가 ESF에 어떻게 참여 하는가 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ESF 한양회관 간사에게 학사 월례회 설교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발라고 하는 부탁이었다. 나는 50년이 넘는 목회 생활 가운데 누구에게 설교의 기회를 달라고 부탁해 본 일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 주 한양회관 간사님은 유럽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잔뜩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월례회 예배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것은 큰 실례라고 내 아내에게 엄청난 꾸지람을 들었

다. 그러나 나는 그 설교에서 큰 산아 물러 가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22-23과 스가랴 4:6-7a 말씀이었다, 아무리 큰 산과 같은 어려운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큰 산이 물러 간다고 외쳤다, 그 설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설교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불편해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몇 주동안 많은 고통의 시간을 가졌다, 나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너무 내성적이어서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알 때 많은 상처를 받는다.

특히 그 설교에서 내가 강조한 것은 내가 학생 복음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산이 물러 갔던 이야기를 간증하고 우리에게 현재 가로막고 있는 산을 물러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금 우리 ESF 한양회관 건물을 우리가 매입할 때 돈이 없어 1-2층을 새 놓고 지하와 3층 가건물을 쓰고 있는데 1-2층을 커피숍으로 쓰고 있는 분이 기한이 차서 가게를 접 겠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15년동안 그 가게를 통해서 받은 월세로 빚도 갚고 이제 우리가 그 건물을 다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시 세를 놓겠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건물을 다 쓰는 일이 산처럼 어려운 일이지만 다 쓰자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하는 냄새가 나고 자주 물이 새서 사용이 불편하고, 3층은 가 건물이라 오르랑 내리랑하기가 여간 불편해서 이번 기회가 왔으니 다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1-2층을 사용하게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생 선교를 하면서 모임 장소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개인적으로도 큰 산이 있었다, 내 아내가 패암이 재발 되어 항암 약을 먹고 있었다, 부작용이 많아 두 번이나 정맥 주사를 3시간동안 맞아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더 힘든 것은 매월 700만원 되는 엄청난 비싼 항암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 주고 있는 그 커피숍에서 8일 동인 매일 가서 기도했다, 그곳은 우리 집에서 왕복 3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기도한 가운데 내 마음에 매월 700만원의 약값을 내야 함에도 3000만원을 현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미친 짓이다. 사실 매월 700만원의 항암약값을 마련 한다는 것도 은퇴한 목사로서 불 가능한 일이었다. 큰 산이었다. 그런데 3000만원을 현금 하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다른 성도들을 보고 빚으라고 하면서 설교자가 믿음의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참 다운 설교라고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리새인의 설교와 같은 것일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내 아내가 매월 700만원의 항암약이 보험이 되는 약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다. 보험이 되는 약값은 10만원 내이다. 이제 5개월 분의 약 값으로 능히 3000만원의 현금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손이 떨려서 글을 쓸 수가 없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 견디기 힘들 정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한다고 하나님은 강조하신다. 그리고 얼마나 것처럼 큰 능력을 보여 주셨음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마음아파 하시는가? 우리안에 불신의 뿌리는 하나님이 보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손해도 감당하자.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감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여 주신 희생과 손해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이란 다른 사람의 최고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최대의 희생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의 최대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최대의 희생을 원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불신의 뿌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영광만을 구하기 때문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네가 손해보기 싫어서이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중 10%만큼이라도 성부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을 향하여 물러가라고 함다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 오는 일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꿈꾸며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